

6조 펫시장 잡아라... IT·통신업계, 신기술 기반 사업 확장

SKT, 질병진단 솔루션 엑스칼리버
KT, 자동급식기 반려견 디바이스팩
LGU+, 간식로봇 등 펫테크 서비스
네이버, 펫 전문 쇼핑몰 100억 투자
카카오, 펫 택시 서비스 펫미업 인수

국내 IT, 통신업계가 반려동물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이 오는 2027년 6조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ICT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으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 비중은 312만 명으로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를 차지하고 있다. 관련 인구 역시 2010년대 중반 1000만명에서 현재 1500만명으로 50% 급증했다. 이는 전체의 15%에 이르는 수치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것. KB경영연구소는 반려동물 시장 규모를 2027년 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통신업계는 IoT, AI, 빅데이터, ICT, O2O, 웨어러블 등의 기술을 결합한 '펫산업' 확장에 속력을 내는 분위기다.

◆통신사, 신기술 앞세워 '펫산업' 확장

SK텔레콤은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질병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상용화한다. SK텔레콤은 최근 AI가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수의사의 질병 진단을



오이세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진료실에서 '엑스칼리버'를 통해 분석한 반려견의 엑스레이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도와주는 솔루션 '엑스칼리버'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외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AI기술을 접목한 엑스칼리버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엑스칼리버는 SK텔레콤이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솔루션으로 AI가 반려동물의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 단시간에 판별하기 어려운 질환을 찾아내고 질병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수의사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1분안에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KT는 지난 5월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분석하는 'IoT웨어러블'과 적정 사료량 급여와 실시간 영상·음성 소통이 가능한 '자동급식기'를 제공하는 '반려견 디바이스팩'을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IoT 기능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기록·업로드 하며 이에 맞게 적절한 양의 사료를 급식해 반려견의 비만 관리를 돕는다. KT의 5G 요금제 '5G 디바이스 초이스' 가입자는 이 서비스를 선택, 24개월동안 단말 할부 수수료만 납부하면 사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IoT를 활용, 'U+ 스마트홈'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시장을 노리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펫테크 서비스는 원격으로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시간에 맞게 사료를 자동 급식하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여기에 굴러다니는 '간식로봇'을 활용해 반려동물이 실내에서 간식을 먹으며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펫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T 펫'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같은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펫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반려가구의 64.1%는 펫테크 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자주 사용되는 펫테크 기기는 '자동급식기와 자동 급수기'(39.4%)와 '홈 CCTV와 카메라'(30.3%), '자동 장난감'(26.1%) 순이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2020년 57억달러 수준인 세계 펫테크 시장은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7년 272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펫테크의 발전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1인 또는 2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반려동물 보급률을 상승시킬 여지가 크다.

◆IT공룡들은 '펫' 투자에 주력

카카오와 네이버는 펫테크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이다.

네이버는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 어바웃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어바웃펜

은 지난해 5월 네이버와 손잡고 '맞춤형 펫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어바웃펜은 이번 투자를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IT기술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기술 스타트업 '유리베토리아'에도 투자했다. 유리베토리아는 가정에서 손쉽게 반려동물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자체 개발해 사업 중이다. 유리베토리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제품은 반려동물용 스마트 소변진단키트 '유리베토10'이다. 유리베토10은 스마트폰 카메라와 전용 소변진단키트를 활용해, 모바일 앱에서 10가지 이상의 내과 질환 위험을 1분만에 간편하게 검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3월 펫택시 서비스 '펫미업'을 인수해 4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펫택시'는 반려동물 전용 택시로 반려동물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고 승차 거부 염려도 없어서 선호도가 높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연내 수도권 지역 내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토록 안정화에 주력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로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 중인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두드러진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LGU+, 커넥티드카 정조준... 오비고에 72억 지분 투자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제휴 협약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역량 고도화

LG유플러스가 '오비고'와 손잡고 '커넥티드카 1000만 시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사인 오비고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사업 제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오비고의 웹플랫폼 사용권을 확보하게 돼 스마트카 통신 서비스 및 콘텐츠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게 된다.

LG유플러스가 급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오비고에 72억 3210



오이세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진료실에서 '엑스칼리버'를 통해 분석한 반려견의 엑스레이 사진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만원(지분율 5%)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

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에서 열린 사업 제휴 협약식은 LG유플러스 최택진 기업부문장(부사장), 오비고 황도연 대표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비고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특히 글로벌 완성차 및 국내 대부분의 스마트카에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비고는 차량용 웹 브라우저·앱 프레임워크·앱 스토어까지 자체 생태계를 구축, 업계에서 유일하게 상용 플랫폼과 SI(시스템 통합) 개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LG유플러스

는 오비고 웹플랫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 U+아이들나라, 모바일tv, 프로야구 등 자사의 대표 콘텐츠를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장 진출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양사는 이번 사업 제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역량을 고도화하고, 차량용 통신 서비스 사업과 콘텐츠 사업을 동시에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기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완성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추가 사업 제휴를 맺거나, 양사의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 고객사를 확보해 커넥티드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echo@

KT '와이파이6E' 적용 가정용 공유기 출시

KT는 '와이파이6E'를 적용한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6E(GWP 6E)'를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와이파이6E는 기존 와이파이6(802.11ax)를 확장한 표준 규격이다. 이 표준은 2.4GHz와 5GHz 주파수에 추가적으로 신규 주파수 대역인 6GHz 채널을 지원해 주파수 간섭 영향이 적다. 와이파이6E는 와이파이6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KT는 와이파이 기반 디바이스 수증가와 기존 주파수 대역(2.4, 5GHz)을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고객에게 더욱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용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6E 공유기를 기획했다.

갤럭시 S22 플러스와 울트라, 갤럭시 Z 폴드4를 비롯해 갤럭시북2가 와이파이6E 표준을 지원한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6E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와이파이6 공유기 '기가 와이파이 홈 에이엑스(ax)'가 최대 1.2G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기가 와이파이 프리미엄 6E는 최대 2.4Gbps를 지원한다.

/채윤정 기자

SKT '이프랜드', 매일 새 콘텐츠 선보여

성우협회·TJ미디어 등과 협력
크리에이터 생태계 확장 추진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는 매일 새로운 메타버스 콘텐츠를 선보인다.

SKT는 3일부터 메타버스 Live 연극, 노래방, 뮤직쇼, 특강 등 매일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를 정규 편성해 월

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성우협회, TJ미디어, 동아방송예술대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했다.

SKT는 쌍방향 소통 가능한 메타버스 라이브쇼 계속 선보여 크리에이터 생태계 확장할 계획이다.

SKT는 매주 특정 시간대에 이용자

들과 진행자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OTT처럼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로 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메타버스 Live 연극'이 3월부터 매주 월,화 19시에 이프랜드에서 진행된다. 이번 실시간 메타버스 연극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는 창작극 '니맘내맘역할대행 주식회사'를 16부작으로 다룬다. 메타버스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분량의 연극을 선보이는 건 이번이 최하다.

메타버스 Live 연극은 SKT가 사단법인 한국성우협회와 협력해 선보이는 콘텐츠로, 방송과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활약 중인 전문 성우들이 목소리와 아바타 모션으로 메타버스에서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바타 노래자랑'은 TJ미디어가 보유한 노래 반주를 활용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방 소통 프로그램으로 매일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채윤정 기자